

# 언어규범과 표준



김현권

한국방송통신대학 불문과 교수  
02-3668-4581

## 1. 언어규범의 형성과 종류

언어의 규범(즉 표준, standard)은 한 사회 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표준화된 언어관용(usage)이다. 언어규범은 보통 언어의 화계(話階), 문법, 사전, 절자법으로 언어사용을 통제하고, 언어교육을 실시한다. 프랑스는 특히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언어규범을 명시적으로 잘 정의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언어생활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국가 및 사회지도 집단의 수많은 사회문화적 노력의 결과로 이 언어규범을 만들어 내었다. 나아가서 언어규범은 곧 언어입법으로 발전하여 강제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언어규범이 만들어져 언어공동체에 부과되어 사용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확인되고, 공동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애당초 규범이 만들어지려면, 언어관용과 언어 문제에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프랑스어의 규범과 언어입법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관용에서 규범으로 사용되는 모델언어

를 어떻게 분석해 내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이 규범이 프랑스의 역사를 통해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의 규범은 12세기 이래로 확인되는 프랑스 북부지방의 방언인 프랑치아어에 실질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다. 프랑치아어가 규범이 된 배경에는 프랑스 왕의 정치적 체계(모니, 일르 드 프랑스의 정치(왕궁이 위치), 종교(대수도원이 위치), 지리(북부지방의 요충지), 경제(신흥 부르주와지) 등의 여건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강정 왕족과 귀족이 있어서 이들이 사회계층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언어관용이 가장 탁월한 사회적 위세를 지닌 언어로 정착되었고, 일반 사람들의 언어관용은 모두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또 다른 한편으로 17세기의 올바른 프랑스어(bon francais, bon usage)라는 개념이 규범으로 정착했는데 올바른 프랑스어는 바로 이 궁정의 프랑스어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문법가들과 작가들이 이를 규범화했던 것이다. 또한 프랑

스는 이미 17세기에 언어규범의 집단적 체계를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emie francaise)에 위임했다. 사전편찬가, 문법가, 문체론자는 자신의 언어능력, 언어의식과 언어지식에 입각해서 언어관용의 일반적 규칙을 세우고, 문인(文人)들에게 올바른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촉구했다. 대혁명기에는 파리의 교양있는 부르주와지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훌륭한 작가로 인정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관용을 언어의 모델로 삼았다.

이처럼 규범이 존재하려면 인물, 조직, 제도적 단체가 필요하고, 이를 언어사회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제반 수단이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는 규범 확립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조직 및 집단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예컨대 언어규범의 진형적인 인물로는 이탈리아에는 단테, 페트라르카가 있고, 영국에는 초서, 셰익스피어, 독일에는 루터 등이 있었지만, 프랑스어에는 이와 같은 규범적 인물은 없었고, 라블레, 몽테뉴, 코르네이유, 볼리에르, 라신, 파스칼 등의 작가집단들이 규범을 주도 했다. 이 작가군들의 언어관용이 규범의 산 출처가 되었다. 긍정과 귀족이 몰락하면서 올바른 프랑스어의 준거가 사라지자 유명 작가들의 언어관용이 문법가들에 의해 언어권위로 인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프랑스어의 규범은 사회상류층을 전하고 있던 사회집단의 언어관용과 올바른 프랑스어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육이 대중화되고, 수많은 다양한 언어관용들이 자리잡으면서 문학어만이 더 이상 규범이 될 수 없고, 규범의 개념 자체도 과거의 개념과는 다른 함의를 가지면서 규범의 정의가 확장되고, 혼동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규범의 기초가 문제시되자 언어규범의 한계 설정이 더욱 절실해졌다. 언어적 다원주의와 사회계층의 혼란 등으로 언어규범을 사회의 특정 계층에 국한할 수 없고, 이들이 올바른 프랑스어를 대표할 수도 없게 되자 규범화를 위한 제반 조치가 언어현실을 포괄할 수

없게 되었다. 규범의 실천자, 즉 규범을 사용하는 자가 없으면 규범은 사문화되고, 규범의 위반과 이탈이 확대되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언어관용이 되어 규범이 된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계층에 국한된, 문화적 엘리트가 사용하는 프랑스어와 문학 프랑스어는 더 이상 처방규범이 될 수 없었고, 대부분의 화자가 실제 받아들여 사용하는 관용규범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는 언어규범은 처방적(prescriptive)이었다. 즉 규범행위에 의해 제정되어 공동체에 의무적, 공식적으로 부과되는 일정한 체계를 지닌 언어 레지스터(register)였다. 이 규범은 문서화된 처방들이며, 그 사용이 외부로부터 통제되고, 지도되고, 인도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문어(文語)가 곧 규범이었다. 프랑스어에서 규범언어는 곧 문어를 의미했기 때문에 구어는 제외되었으며, 현행의 언어관용, 전문어, 신어(新語) 등도 제외되었다. 따라서 처방규범은 실제의 언어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다소 이상적, 추상적, 이론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이 처방규범 외에 관용규범의 개념이 생겨나 이를 하위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용(descriptive) 규범은 공동체에 언어생활을 통해 스스로 규제되는 사회언어적 관행의 레지스터로서 초개인적, 집단적 언어현실이며, 관용에 의해 일반화된 것이다.

치방규범에서는 편차, 오류로 지적되지만 모국어 화자에게는 친숙하게 느껴지고,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언어관용도 있고, 관용규범에는 완벽히 일치하지만 일상의 평균적인 치방규범에는 벗어나는, 언어내중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관용도 있다. 그러므로 규범의 의미는 정의상 다소 엄격하지만, 관행상 다소 유연성이 있다. 과거의 규범적 언어관용이 너무 보수적이면 거의 잘 사용되지 않는 반면, 새로이 생겨나는 언어관용은 관용규범으로 흡수되고, 나중에



는 처방규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의 개념 범위 자체도 시대에 따라 다소간 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 프랑스어는 17세기 이래의 이상적(理想的)인 처방규범이 한편으로 존재하면서 언어현실에서 사용되는 관용규범이 혼재한다. 공용 프랑스어는 바로 이 두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화계상으로는 규범 프랑스어를 포함하여, 공통 프랑스와 친밀 프랑스어까지 포함한다. 주로 문어인 문학어에 기반하여 만든 사전인 <소 로베르 사전>은 주로 처방규범을 따르고 있으나 현대의 구어에 기반하여 작성한 사전인 <현대 프랑스어 사전>은 관용규범을 따르고 있다. 또한 친밀어, 민중어, 외래어, 신어 등의 어휘는 질적(質的)으로 보면 규범 프랑스어 아래 화계에 있으나 일상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용규범에 포함시킬 수 있다.

프랑스에는 많은 언어전문가들과 단체들이 규범을 확립하고, 언어 문제에 규범적 조치를 취하고, 규범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킨다. 우선 문법가와 사전편찬가들과 공식적, 비공식적 언어기관들과 입법자로서 국가가 있다. 인문주의 시대에는 고전어(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본받아 언어를 완성단계에 올려놓고자 했던 많은 문법학자와 사전학자의 노력이 있었다. 17세기에는 올바른 용법을 주창한 학자들이 있었고, 시대에 따라 언어순수주의자, 관용주의자, 중도파로 불린다. 특히 언어순수주의자들은 언어 문제에 매우 엄격하여 올바른 프랑스어를 옹호했다. 20세기에 전통적인 처방규범이 흔들리자 언어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표준 프랑스어(français standard)란 용어가 유행했으나 아카데미 프랑세즈(1967)가 규범(nor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이 규칙에 따라 규범, 규범화(normalisation), 문법규범, 어휘규범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2. 국제적 언어규범

이처럼 한 국가 내에서는 언어규범이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인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지만 언어에는 국제규범이 존재하는 것인가? 전 세계에는 약 5,500 내지 6,000여개의 언어가 있다. 한국어는 사용자수가 한반도와 일본, 중국, 미국 등의 교민을 합쳐서 약 7,500만으로 추산되고, 전 세계에서 약 12-13위의 사용자수를 갖는다. 이는 한국이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순위와 거의 맞먹는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어권도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퀘벡을 합쳐도 사용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프랑스어가 사용되는 영역을 보면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와 문화예술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18-19세기 프랑스가 정치, 문화, 외교의 영역에서 유럽의 중심국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 2차 대전 이후 20세기 후반기를 지나면서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영어의 사용영역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늘날은 가히 세계의 공용어(koine 또는 lingua franca)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웬만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언어에 영어 요소(특히 어휘)가 엄청나게 침투되어 있으며, 특히 과학, 기술, 산업, 경제, 군사, 외교 등의 전문 영역에는 영어가 거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영어 방송인 CNN, BBC는 거의 모든 국제적인 호텔에서는 필수적이 되었고, 영어는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고, 세계 비즈니스의 언어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과연 영어가 이 위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국제의 언어규범으로 정착될 것인지 하는 문제와 현재 이러한 영어의 지배에 대해 자국어들이 이용하되 통번역을 자유로이 수행하여 광범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들 간의 의사소통을 추진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무엇인지 하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서양의 문화와 문명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의해 전승되었다. 그리스어보다 라틴어가 더 광범한 지역에서 더욱 오랫동안 문명의 담지자로서 문어(文語) 형태로 근대까지 사용되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서구에서 사용되었으니 그 지배력은 엄청났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 상층부와 지식인, 종교인의 언어였고, 일반 대중은 라틴어를 전혀 알지 못했다.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각국은 자국어(대중어)에 비로소 눈을 뜨고, 자국어로 문헌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라틴어 성서가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번역된 것은 16세기에 와서였다. 그러나 교육이 일반화되고, 문자해독이 이루어져 대중들이 교양인으로 문화담지자가 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오늘날 교육이 일반화되고, 세계화로 인해 상호 접촉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엄청나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영어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에서나 영어는 여전히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영역과 비즈니스에서 이용하는 언어이며, 이 전문가들조차 일상에서는 자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부분의 문헌들을 기록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에 한국인이 국내(또는 국외)에서 책을 영어로 출간하는 통계를 조사해 보더라도 영어는 여전히 국제적인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의사소통수단일 뿐 것이다.

그러나 전문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영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 영역에서는 영어교육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이 노력을 줄이고, 엄청나게 폭증하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전문영역과 비즈니스에서 통번역을 통한 자연언어처리 기술에 기반한 언어공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언어들은 음성, 문자, 형태, 의미, 문장 등의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요소들의 구조들이 아주 다른 뿐만 아니라 이 언어들로 기록된 언어자원(resources)들과 매체들도 천차만별이어서 이들을 기계적으

로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국제적인 규범 또는 표준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진에 담겨져 있는 언어정보들의 종류와 수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고, 이 정보를 담고 있는 그 포맷을 보더라도 통일된 게 없다. 우선 각 언어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처리하는 기술이 있어야 하되 이들의 상호 호환성과 운용성을 보장하는 공통의 표준적인 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 언어의 다양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전문용어와 언어자원 처리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예컨대 ISO TC 37/SC1, TC 37/SC2, TC 37/SC3, TC 37/SC4는 전문용어, 사진, 기타 언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예컨대 전자사전이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규격화, 표준화하여 국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제반 원리 및 방법, 각종 데이터 범주, 포맷, 마크업 프레임워크, 주석형식, 형식언어 등을 제정하고 있다.

ISO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어 관련 표준들을 보면, 언어명칭 표상코드(ISO 639-1), 언어 표상코드(ISO 639-2, 639-3), 전문용어와 기타 언어자원(ISO 12620-1, ISO 12620-2, ISO 12620-3), 국가와 지역명칭 표상코드(ISO 3166-1, 3166-2, 3166-3), 문자 표상코드(ISO 15924), 언어형식(SGML, XML, ISO 8879, 8879/TC2) 등이며, 이외에 이들을 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표준들도 있다. 특히 한국도 전문용어를 국내적으로 통일하여 표준을 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제표준기구에서 인정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모든 언어자원들의 표준도 하루바삐 연구하여 결정하고, 국제표준기구에 등록해야 할 것이다.